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16

“우리도 함께 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우리 농산물 우수성 알리며 호남 대표 마라톤 달린다

정종순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빛찬들·광주쌀 우수성 홍보

광주본부 직원들은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광주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빛찬들'과 광주통합RPC에서 생산되는 광주쌀의 우수성을 참가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소비해줄 때임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에는 정종순 본부장을 비롯해 김성호 지도경제본부장, 이근 금융사업본부장 및 지역본부 각 팀장과 관내 중앙회 지점장들도 다수 참가한다. 마라톤 동호인들 위주로 참석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를 통해 올 한해 사업추진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김태경(52·기획총무팀장)씨는 “작년부터 국민들의 농협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호남의 대표

본부장 등 임직원 다수 참여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여론을 견제하러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업으로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종순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3·1절 마라톤에 참가하는 광주본부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에 입사한 이승정(27·화정동지점)씨는 “이 시대의 젊은이로써 있고 있었던 3·1 독립정신과 순국선열의 얼을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서 “비록 5km의 짧은 거리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입사 당시의 각오를 잊지 않고 달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성호 지도경제본부장은 “대회 20여

“농협 거듭나는 계기 될 것”

일 전부터 퇴근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씩 돌면서 체력을 조절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다시 뛰는 농협의 모습을 보여드려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순 본부장은 “지역민들이 자동차와

광산업 등의 공산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민들 모두 축제처럼 즐기면서 완주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농협으로 태어나기 위해 마라톤을 통해 맑을 흘리는 농협 임직원들의 모습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3.1절 전국 마라톤 빛낸다

페이스메이커 '광화문마라톤 모임'



3·1 마라톤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광화문마라톤모임 회원들.

초보자 페이스 조절 경쾌한 질주 도와

즐거운 마라톤을 위해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 제일의 전문체육인 스포츠로 손꼽히는 광화문마라톤모임의 이야기다.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페이스 메이커로 맹활약하고 있는 광화문마라톤모임 회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페이스 메이커로 나서며 3·1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은 이들은 올해도 마라톤러들의 경쾌한 질주를 위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1999년 건강하고 즐거운 마라톤 문화 보급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모임을 시작한 이들은 2002년 1기 페이스 메이커를 선발하면서 전문체육인 스포츠로서의 틀을 갖추었다. 현재 모임은 권역별로 수도권팀,

영남권팀, 호남권팀, 중부권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호남권 팀에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40여 명이 열성적인 활동을 하며 매년 4회 이상 페이스메이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풀기 달리기와 육상 꿈나무 돕기 성금 모집과 바자회 등을 열고 마라톤을 통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전국을 누비며 달리는 이들에게 3·1 마라톤대회에는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다.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대회인데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출발점인 만큼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풍성한 대회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참가자들이 페이스 메이커를 따라 편하고 즐겁게 달릴 때 가장 큰 보람

을 느낀다. 즐거운 마라톤의 도우미인 이들은 초보 마라톤러들의 코치 역할도 겸한다.

호남권팀 박남균(56)팀장은 “초보자들이 페이스 조절을 하며 끝까지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이끌고, 자새나 호흡이 불안정하면 조언을 해 편안하게 완주할 있도록 유도한다”며 “난코스에서는 힘을 실어 주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기록의 경기 마라톤이지만 회원들은 부상 없는 건강한 달리기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초보 마라톤러들의 건강 도우미로 마라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은 3월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수비 불안... 마음 놓을 수 없다

남아공행 반환점 돈 허정무호 중간 점검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과 맞대결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의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은 이날 이란과 4차전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겨 2승2무(승점 8)로 B조 선두를 지켜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키웠다.

팀당 4경기씩 남아 있지만, 원정경기를 세 차례나 치르면서 1위 자리를 지켜 남은 일정도 자신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수비 조직력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3차 예선까지만 해도 옥색 가리기와 다양한 실험으로 어수선하던 허정무호는 '세대 교체'라는 돌격을 발판으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세대교체의 대표 주자는 프로축구 FC 서울의 듀오 이청용과 기성용이다. 지난해 각각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측면 미드필더 이청용과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은 허정무호의 키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토종 골잡이 이근호(대구)와 중앙 수비수 강민수(제주) 등 올림픽대표 출신들도 주축

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일 월드컵 대표팀 막내급이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든든한 '주장'으로 거듭났다.

대표팀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역시 수비 조직력이다. 11일 이란전은 상대가 단조로운 공격을 이어가 우리 수비진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전반 초반 중앙 수비수 조영형(제주)과 오른쪽 풀백 오범석(사파라)의 볼 처리가 늦어 위기를 자초할 뻔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장면은 여전히 있었다.

이란전에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 허정무호는 4월1일 남아공행의 분수령이 될 북한전 출격을 앞두고 있다. 북한과 대결에서 승리하면 남아공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2위 자리마저 내줄 수 있다.

북한과는 지난해에만 동아시아선수권대회(1-1)를 시작으로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 홈·원정경기(0-0) 및 최종예선 원정경기(1-1)까지 네 차례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북한과 격돌이 끝나면 후반부 일정 중 가장

순위	국가	경기	승점	승	무	패	득	실
1	중국	4	10	3	1	0	6	0
2	일본	4	8	2	2	0	7	3
3	태국	4	4	1	1	2	4	5
4	대한민국	4	4	1	1	2	4	5
5	우즈베키스탄	4	1	0	1	3	1	6

결리는 6, 7차전이 한국팀을 기다린다. 한창 뜨거운 6월6일 UAE와 6차전 원정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음 뒤인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서울에서 7차전을 벌여야 한다. 북한은 허정무호가 넘어야 할 산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와 4년 재계약”

엠티 더 타임즈 인터넷판 보도

'산소 탱크' 박지성(28·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계약을 4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12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맨유가 미드필더 박지성, 수비수 조니 에반스와 다음 달 안에 장기 계약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박지성과 4년, 에반스와 5년 각각 계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지성은 올 시즌 전체 정규리그 24경기 중 16경기에 출장했고 그 중 선발로 나선 게 14경기에 이를 정도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번 시즌 1골에 그쳤지만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 박지성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퍼거슨 감독도 앞서 “박지성은 재계약 제의를 받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적인



선수이고,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라면서 계약 연장을 암시했다.

지난 2005년 7월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맨유로 이적하면서 4년 계약을 했던 박지성은 이듬해 8월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내년 7월까지 계약돼 있다. 박지성은 계약 연장을 하면서 연봉 280만파운드(한화 56억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과 대우에 합류해 계약 갱신 과정에서 몸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 방송사, LPGA 투어 밥줄?

방송 경쟁에 중계료 두배 폭등

전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대회가 줄어들어 등 잔뜩 위축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한국 방송사가 '밥줄'이 될 전망이다. LPGA 투어는 한국의 골프전문 케이블방송인 J골프와 2010년부터 5년 동안 연간 400만달러에 중계료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일부 매체는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보

도했으나 LPGA 투어는 아직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중계료가 올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폭등하는 셈이다. 현재 LPGA 투어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올해 지급한 중계료는 225만이다.

더구나 J골프는 중계료로 400만달러 뿐 아니라 총상금 170만달러짜리 투어 대회 1개를 주최하고 LPGA 투어 대회 가운데 1개 대회에서 연간 100만달러 안팎의 대회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연간 700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의 베팅한 셈이다.

/연합뉴스

신지에, LPGA 데뷔 첫날 정일미와 티샷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정식 멤버로 데뷔하는 신지에(21·미래에셋·사진)와 위성미(20·나이키골프·미국이름 미셸 위)가 SBS 오픈 대회 첫날을 편안하게 시작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하와이 카후쿠 터틀베이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 1라운드 조편성표를 발표했다.

조편성표에 따르면 신지에는 13일 오전 4시 LPGA 투어의 맏언니 정일미(37·기가골프)와 함께 첫 샷을 날린다. 위성미는 13일 오전 7시50분 호주 유학생 강혜지(19),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를 통해 LPGA 무대에 진출한 박진영(23)과 동반 플레이를 한다.



L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 및 한국계 선수수가 많은 덕에 신지에와 위성미는 시즌 첫 대회라는 부담감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올해도 한국 무대에서 경쟁을 펼칠 서희경(23·하이트)과 김하늘(21·코오롱)이 최운정(17·김영주골프)과 함께 오전 8시20분 출발한다. /연합뉴스